

# 맹장염이 있는 걸까요?

초기 맹장염은 가끔 진단하기가 꽤 어렵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복통 증세로 매일 응급실을 찾지만 소수만이 맹장염으로 밝혀집니다. 당신을 진단한 의사의 소견은 맹장염일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증세는 변할 수 있으므로 그 소견이 100% 항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.

차후 24시간 동안 아래와 같은 예방조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- ◆ 휴식 - 신체 활동 혹은 격렬한 활동을 피한다.
- ◆ 정상 시의 식사와 음료를 섭취한다.
- ◆ 옆에서 당신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한다.
- ◆ 여행을 피하고 특별히 장시간이 소요되는 혹은 외딴 지역으로의 여행을 피한다.
- ◆ 파라세타몰 (paracetamol, 1알에 500mg, 2알을 하루에 4번)과 같은 간단한 진통제를 복용할 것이 권장된다.
- ◆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가정의 (GP)를 보거나 응급실로 간다.
  - ◆ 통증이 커지거나 지속될 때
  - ◆ 계속되는 구토
  - ◆ 고열
  - ◆ 밤에 땀을 흘리거나 오한이 있거나 몸이 떨릴 때
  - ◆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때.

당신의 증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의 조언을 따르고,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의문점이 있으면 병원을 떠나기 전에 의사나 간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.

## 지침:

---



---



---



---



---

## 도움 요청:



의료 응급 상황시 가장 가까운  
응급실로 가거나 000으로  
연락하십시오.

